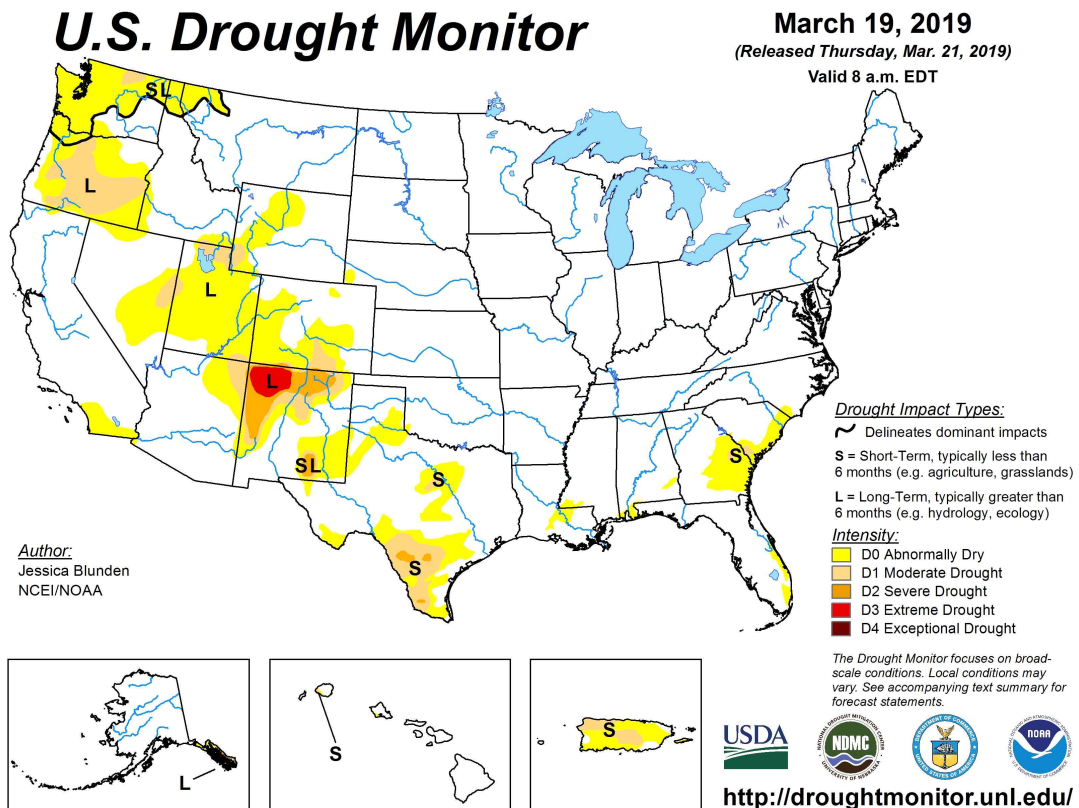


3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52)

□ 미국 기후 현황(3/17~3/23)

강한 저기압계가 서부 옥수수 벨트에 갑자기 기록적인 홍수를 일으킨 지 일주일도 지난 후 나라의 많은 곳에 걸쳐 아주 조용한 기상 패턴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 쌍의 폭풍 전선이 -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 호우를 내렸다. 동부의 폭풍은 중북대서양 해안을 따라 강해지기 전에 남플로리다에서 강한 소나기를 일으켰다. 총 강수량이 1-3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던 폭풍은 대서양 중부 몇 곳에 지역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한편, 북중캘리포니아와 대분지 (Great Basin)의 일부에는 호우도 내렸다. 평균 이상의 설피빙원 (snowpack)은 시에라 네바다에서부터 중앙로키산맥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북부 분지의 일부 - 주로 캐스캐이드 산맥 북부에서는 평균 이하의 설피빙원이 염려스러웠다. 그 이외에는 미국 북부와 남부를 걸쳐서 대체로 건조한 기후가 우세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북서부에서 중서부 위쪽까지 보다 따뜻한 날씨가 눈 녹음을 다소 유도하여 강 수위를 올렸다. 남부 지역에서는 남동부 냉각 기간이기는 했지만 조기 파종 활동을 포함하여 봄철 밭 작업이 진척되었다. 사실상 차가운 상태는 동부에서 지배적이었는데 오하이오 계곡 남쪽에서부터 멕시코만까지 여러 곳이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낮았다. 반면, 정상에 근접한 또는 정상 이



상의 온도가 미국 서부와 중부의 많은 곳을 덮었다. 태평양 북서부 몇 곳에서는 평년 대비 가장 따뜻한 날씨가 우세하게 나타나 지역적으로는 평균 온도가 평년 대비 10° F 이상이었다.

## □ 세계 기후 현황(3/17~3/23)

■ 유럽: 북부에서 발생한 가벼운 소나기는 유럽 남부에서 세력이 강해진 건조 및 가뭄과 대비되었다. 서늘하지만 (평년보다 2° C까지 낮은) 건조한 날씨가 스페인을 가로질러 우세하여 성장 중인 겨울밀과 보리에 가뭄 피해 우려가 커졌다. 지난 90일간 대부분의 이베리아 반도에 내린 총강수량은 평년의 10-25%에 불과했고, 북서부가 다소 높았을 뿐이었다 (평년의 50-70%). 북스페인에서 겨울밀은 보통 3월말과 4월초에 생식기에 들어가고, 남부가 다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량 감소를 막으려면 곧 수분 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탈리아부터 헝가리와 남발칸까지는 계속해서 건조가 심해져서 많은 작물 지역들에서는 가을 가뭄의 충격과 그 결과 일어나는 겨울작물 활착 불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 중북유럽에는 일련의 빠르게 움직이는 폭풍이 주기적으로 총 2-15 mm의 소나기를 내리서 밀과 유채의 녹화 (동부) 및 성장 (서부)에 적당한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

■ 구소련(서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부에서는 겨울밀의 녹색 성장을 촉진시켰고 더 북쪽에 눈이 없는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들을 휴면에서 깨웠다. 일주일 감시 기간 동안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2-7° C 높아서 몰도바와 남우크라이나에서부터 남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밀의 녹화를 촉진하고 있다. 더 북쪽으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북부 대부분에서부터 불가 지방까지는 땅에 눈이 남아 있었다. 계속 눈이 녹았던 북부 지방에서 평년보다 날씨가 한주 더 따뜻하면서 밀이 천천히 휴면에서 깨어났다. 남동 우크라이나에 걸쳐 단기간으로 발달한 건조를 몇 주 계속 근접하여 감시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겨울밀 전망은 습한 가을과 겨울 덕분에 그곳 대부분의 형편이 좋다.

■ 동아시아: 남동중국은 다시 내린 소나기 (25-100 mm)로 토양이 포화되어 생식 성장 단계에 들어선 유채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시 전망된 반면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봄 벼에 유리한 물 수준을 유지되었고 관개 저수가 상승되었다. 일부 남동부 성들에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강수량이 30년만에 최고치였다. 동부와 남동부 전역의 평년 대비 3-7° C가 높은 이상고온 날씨로 북중국 평원에서는 영양 성장 중인 밀을 포함해서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되었다.

■ 호주: 두 번째 연속 주간 동안 산발적인 소나기 (5-25 mm)가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를 뒤덮었다. 이 소나기 때문에 지역의 여름 작물 건조와 수확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겨울밀 파종에 앞서서 표토의 수분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서 그 지역에서 아주 필요했던 가뭄 개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동호주에서는 장기간의 가뭄을 끝내려면 훨씬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평년 대비 평균 온도가 2-4° C 높은)가 계속되어 여름 작물의 숙기를 앞당기고 있지만 증발률이 평년보다 계속 높았다.

■ 아르헨티나: 알맞은 비가 짧게 내린 후에 아르헨티나의 남서 농업 지역에는 좀더 건조한 상태가 돌아왔다. 라 팜파, 남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인근 일부에 있는 대부분의 위



치에서 총강수량은 10 mm 이하였다. 동 코르도바와 남서 산타페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두 번째 주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그 밖의 중앙 아르헨티나 지역 (특히 엔트레 리오스, 서 코르도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10-25 mm의 강우가 있었을 뿐이었다. 차코 동부 인근에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적당하거나 심한 비 (10-25 mm 또는 그 이상)가 북아르헨티나 전역을 휩쓸었다. 여름 작물 성숙을 위해서는 비가 아주 늦게 온 것이지만 계절적인 비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는 겨울 곡물에 유익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 지대 전체적으로 주간 평균 온도는, 며칠 동안의 건조가 있는 후 주말 낮 최고 온도가 섭씨 20도 대 후반 및 30도 대 전반에 잠깐 도달하기는 했지만, 평년 대비 1-3° C 낮았다. 전통적으로 좀더 서늘한 남부 농장 지대 (특히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저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지만 결빙은 기록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여름 작물 파종은 날씨가 허락하는 만큼 많은 곳에서 앞당겨졌다: 해바라기는 남부 농장 지대에서 활동이 증가되면서 3월 21일 56 퍼센트 수확되었고 옥수수는 10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광범위하게 내린 국지적 호우로 브라질 남부와 중부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농업 생산 지역에 있는 미성숙 밭작물 전체에 전반적으로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 25-100 mm의 강우가 내렸는데 지난 주 대체적으로 건조했던 동부 지역 (‘미нас 게라이스’ 동부에서 북쪽으로 ‘마란하오’ 까지)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절우가 계속되면서 미성숙 작물에 좋은 수분 수준이 유지되었는데 특히 후작물인 옥수수와 목화, 그리고 사탕수수와 커피 등의 특수 작물들에게 유리했다. 한편 계절 밭 작업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콩과 1차 재식 옥수수는 3월 18일 현재 각각 72, 66% 수확되었고 2차 옥수수 파종은 거의 94%가 끝났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3월 21일 현재 콩 수확이 작년 25% 및 연평균 17% 대비 18% 끝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하고 있다. 남브라질에서 주간 온도는 평년 대비 아주 약간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좀더 북쪽에서는 평년 대비 4° C까지 높았는데, 낮 최고 온도는 ‘마토 그로소’, ‘토칸틴스’ 인근 지역들, ‘미нас 게라이스’ 북부에서부터 ‘토칸틴스’ 북동부 해변까지 그리고 ‘상 파울로’ 북동쪽에서부터 ‘바히아’ 까지는 섭씨 30도 대 중반에 도달했다.